

보도 일시	2023. 1. 11.(수) 즉시보도		
담당 부서	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	책임자	과 장 정우철 (044-205-5310)
		담당자	사무관 현종일 (044-205-5314)

12.21.~24. 대설·한파·강풍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

- 선포지역 : 전북 순창군 쌍치면 -

-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1.11.), ‘22.12.21.~24. 대설·한파·강풍 피해지역 중 피해액이 읍·면·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을 충족한 전북 순창군 쌍치면*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.
 - * 전북 순창군 쌍치면 피해액 8.4억 원 / 선포기준 6억 원
 -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순창군 쌍치면은 지난 ’22.12.21.~24. 기간 중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대설(순창 63.7cm)로 비닐하우스·축사 등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이다.
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본부장 :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)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국비로 전환*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.
 - * 대설피해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국비 분담율 : 70% → 80%
 - 그 밖에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, 전남 담양군 등 45개 지자체의 피해 주민에게도 국비와 지방비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.
 - 참고로, 중대본은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금까지 총 4차례 있었으며, 이번 선포는 지난 ’11년 2월 대설 이후 약 12년 만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.

-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“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”라면서,
 - “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 명절 전에 비닐하우스 등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□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: 총 39회 선포

□ 대설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: 총 4회

(단위 : 명, 억원)

연번	재해명	선포일	선포지역	인명피해	피해액	복구비
1	'04.3.4~5 대설	'04. 3. 10	10개 시도 82개 시군구 (전국 일원)	-	6,734	8,827
2	'05.12.3~24 대설·풍랑	'05. 12. 29	9개 시도 57개 시군구 (전국 일원)	14	5,206	7,213
3	'10.12.29~'11.1.4 대설	'11. 1. 24	전남 영암	-	383	167
4	'11.2.11~14 대설	'11. 3. 3	강원 강릉·삼척 경북 울진	-	360	236